

국내 소식



빠르면 내년부터 정수장관리요원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77개 정수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정수장 근무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수도법 개정과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정수장 근무 요원의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수장 점검은 2003년도 중소기업 정수장 평가 때 '보통', '양호' 등급을 받은 77개소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정수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표준 인력은 392명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76%에 불과한 299명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전문성 없는 청경이나 일용직원도 41%나 됐다.

한편 환경부는 조사대상 중 4개 정수장이 노후한 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때문에 탁도와 알루미늄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문제가 드러난 정수장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 2 m³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를 토대로 2003년도 전국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242개(시설용량 20.9백만m³/일)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에 따른 하수도보급률이 78.8%라고 밝혔다.

연평균 방류수질은 BOD가 전년도 11mg/l에서 10mg/l로 낮아진 것을 비롯하여 COD, SS, T-N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하수처리 운영을 전문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하수처리



시설이 '99년 33개소에서 '01년 89개소, '02년 114개소, '03년 13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연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전년도 2.6억톤보다 32.2% 증가한 3.5억톤으로 주로 세척수, 냉각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재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래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고도처리 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시설부터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16일에 송전정수장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권광역상수도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97년에 착수하여 7년 만에 준공되는 원주권광역상수도 사업은 총 1,0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국내 최초 선진 정수처리공정(용존공기부상법, DAF)을 갖춘 정수장 1개소와 가압장 2개소, 64km의 관로 등을 갖추게 되었으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지역에 하루 20만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사업의 준공으로 원주시와 횡성군의 상수도 급수지역이 당초 1시 2읍에서 1시 2읍 9면으로 확대되어 급수 인구가 208천명에서 441천명으로, 급수 보급률이 77%에서 96%로 증가하여 주민들의 보건 위생 및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 등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920

정부는 시화공단내 배수관로 연결부분 보수 및 유입지천에 대한 식생호안 조성 사업 등 시화호의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7개 신규 사업에 920억원의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시화호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 개선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해 공단내 간선수로 수질 개선 등 신규 사업비 920억원과 조력발전소 사업비 증액을 포함해 모두 2,071억원이 늘어난 총 9,522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수정했다. 정부는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마련, 지난 2001년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질 개선사업을 벌여왔으며 오는 2006년까지 총 7,451억원의 사업비를 들일 예정이었다.

이번에 추가된 개선계획 사업은 ▲공단내 간선수로 수질개선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조사 ▲공단내 비점오염물질 유입방지 ▲인공습지 기능강화 ▲주요 하천의 생태하천화 ▲저질환경개선사업 ▲시화호관리위원회 활성화 등이다.

PET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집중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화순군,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 지역의 이재민



들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PET병물 2만병 및 생필품을 지난 8월말에 해당 지역에 긴급 지원하였다.

또한 공사의 사회봉사 단체인 "수자원공사 물사랑나눔단"의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활동도 전개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태풍 등의 재해지역과 공공기관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수돗물로 만든 PET병 수돗물을 생산하여 보급하여 왔으며, 올해에만 충청 폭설지역, 속초 산불현장, 흑산도 가뭄지역, 북한 룡천 폭발피해지역 등에 200여만 병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 수돗물 '아리수'가 국제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8월 강북정수장 수돗물과 아리수 페트(PET)병물, 중계동 충숙공 묘역 및 은평구 SK 충전소 수도꼭지의 수돗물 등 총 4점을 채수해 미국내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를 담당한 기관은 미 육·해·공군의 분석기관으로 지정된 조지아주의 STL(Severn Trent Laboratory)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분석전문기관인 웨연구소(Weck Laboratories) 등이다. 검사 결과, 물의 맑기를 나타내는 탁도는 기준치인 0.5NTU를 훨씬 밑도는 0.09NTU 이하로 나왔으며 암모니아성 질소와 농약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검사 결과 아리수는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임이 국제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이는 아리수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상수도

연구소는 지난 9월 4일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환경부로부터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이어 검사기술에 대한 또 한번의 대외적인 검증을 거친 상수도 연구소는, 명실 공히 공인된 국가 검사기관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책임있는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한강 상수원에 대한 원생동물 실태 조사 등 다양한 수질검사와 관련연구를 진행해 나갈 전망이다.

이번 공인 검사항목으로 지정된 원생동물 중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과 지아디아(Giardia)는 수인성 경로를 통해 설사증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로서, 염소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해 80년대 이후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대형 수돗물 수질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만큼, 세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에서 특별한 관리 및 감시가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 받아 왔다.



1989년 국내 최초의 수돗물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상수도연구소는 지금까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수적인 각종 수질분석과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처리기법 연구개발에 매진해 오고 있다.

85%

부산지역 대부분의 관광호텔들이 생수나 지하수 보다 수돗물을 음용수(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7일간 부산지역 3급 이상 호텔 56개소를 대상으로 상수도시설 및 음용수 수질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85%인 48개 호텔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호텔은 8개소(1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돗물 사용추세는 최근 배탈이나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 음용수에 대한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수돗물의 수질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민들의 수돗물 이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부산시민 대상 수돗물 이용실태 여론조사 결과, 수돗물 음용률은 1998년 48.4%에서 2003년 72.9%로 늘어났다. 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토양 및 수맥 오염이 증가에 따라 지하수나 약수 오염도 늘어나자 지하수나 약수 보다 수돗물을 직접 또는

끓임·정수기 사용 등을 통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계 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상수도 행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본부 전직원들이 참여, 嚮(영)기준에서 판단·분석하고, 선진지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기타 활발한 토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42건의 혁신과제 중 10건을 특수 과제로 재선정, 지난 9월 15~16일 양일간에 걸쳐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혁신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먼저, 15일 발표한 혁신과제 제목을 살펴보면 ▲옥내수도관에 대한 획기적인 서비스 지원방안 ▲폐 수도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수돗물 생산량 분석자료 실증분석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최적 모델선정 ▲수질검사항목 및 기준의 지표설정 등이며, 16일에는 ▲검침환경 개선 ▲검침업무 우수탁 제도 적정성 연구 ▲상수도 공기업 조직 활성화 방안 ▲상수도 홍보의 획기적인 전환체계 도입방안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제도 등 10건이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상의 특수과제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본격적인 추가 연구와 실험실습, 각종 제도개선, 전문가 참여, 예산 및 인적지원 등을 통해 정비한 후 실제 현장에 투입함은 물론 기업적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추구의 극대화를 피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수질 연구소는 지난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문수 월드컵 컨벤션센터 지하 2층 루비홀에서 박수환 서울시 상수도 연구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2004년 제3차 상수도 연구발표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 되었고 기관별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상수도 수질관리 및 개선 기술 교류, 기타 수질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를 집중 토의되었다.

수질연구소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수질관리 및 상수도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여 상수도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제 2청사)는 지난 9월 16일 한강 지류인 왕숙천 수질개선을 위해 주변지역인 포천, 남양주, 구리시 등 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날 제2청사에서 ‘왕숙천의 자연 친화적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앞으로 왕숙천 수질개선 및 수변지역의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하천관리 주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왕숙천 유역 환경문화 축제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천안 병천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주시 계룡지방상수도시설, 아산시 용화배수지 확장사업(150억원) 등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 된다.

충청남도는 20억원 이상 도 사업 3건과 30억원 이상 시·군사업 46건 등 49건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타당성투자심사에서 예산군 둔리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26개 사업을 적정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04 WATER KOREA 가

2004년도 강원도 상수도 기능경진대회가 9월 17일 홍천 신행정타운내 홍천 공도장에서 도 및 시군 관련공무원을 포함한 상수도 종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기능경진대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2004 WATER KOREA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상수도 기능경진대회에 강원도 대표를 선발코자 실시되었고 이번 대회 우승 및 준우승팀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경상남도는 시설노후에다 수질 기준초과 등으로 불신을 받아온 간이 상수도 시설관리 업무를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키로 했다. 도의 환경녹지교통국은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사업을 오는 2005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 2009년까지 모두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차 사업으로 2005년에는 불량·노후시설이 많은 8개 시·군을 선정, 지역별로 100개소씩 800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주민 56만 6천명이 4천 772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며 이들 간이상수도는 시장·군수가 관리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주민대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제주도

산천단과 복제주군 한림읍 금악 등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간지역의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어승생저수지에 1만 규모의 정수지를 비롯해 여과기 등 정수 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자원관리본부는 이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정수시설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마치는 오는 11월께 공사에 들어가 2006년말 까지 52억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이다. 정수시설이 완공되면 용수공급량이 9천에서 1만 2천 ~1만 5천으로 늘고, 공급지 역도 종전 8개 마을, 60개 목장, 1만 3천여명에서 21개 마을, 60개 목장, 2만 5천 700명으로 증가 하게 된다. 또한 어승생저수지의 원수를 시·군의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과정을 거친 뒤 수용가에 공급했으나 어승생저수지에서 곧바로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어승생저수지는 최대 저수용량이 10만 6천 800t이며 한라산 머리목 일대에서 흘러 내리는 물을 저장, 중산간지역에 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가 연초면 오비리 중앙하수 처리장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 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6억원을 들여 연초 면 7천 135㎡ 규모의 하수처리장 위에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팔각정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로 이뤄진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주변에는 100여m의 산책로와 함께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어진 친환경 공원으로 꾸며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활용토록 하였고, 하수처리장의 내부 도로와 주차장도 퇴근 후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440억원을 들여 3여년 만인 지난 2월 완공됐으며 하루 1만 5천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시는 신현읍과 거제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도 이러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비 8천 3백만원을 들여 지난 8월 5일 시내 용암 I, II 배수지에 수돗물 수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로는 탁도, pH, 잔류염소, 수온의 4개 항목을 측정하며, 측정방식은 연속측정방법으로 pH와 수온은 시험 간격 없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탁도와

잔류염소는 시약을 사용하여 1~2분 간격으로 측정되어 24시간수돗물 수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다. 측정된 수질검사결과는 기존의 배수지와 정수장간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전송되어 별도의 전용프로그램에 의해 측정값이 표시되고 기록 관리되어 일보, 월보 등의 형태로 출력 가능하여 수질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 배수지에서의 수질이 불량할 경우 경고표시 및 경고음이 울리어 근무자가 수질의 이상상태를 즉시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수질 자동측정기의 설치로, 최근 정부에서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차원으로 제정된 『정수처리 기준』에서 요구하는 24시간 수질자료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시가 중동 일원과 성황, 하포, 황길, 금곡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을 정화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중동 308번지 일원에 착공한 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이 8월 31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은 52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81,550㎡의 부지에 1일 최대 25,000㎡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된 것으로서 DNR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 바다적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양염류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시설되었으며 방류수를 법정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깨끗한 물로 최종 방류하도록 함으로써 광양만 해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한다는 방침아래 모든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지하 시설물이 들어선 지상에는 다목적 잔디 운동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수변공원, 숲속 놀이터, 어린이 교통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놀이를 통한 교통문화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부채 없는 지방 상수도를 운영한다.

목포시는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인 원가절감 방안 등을 마련, 추진한 결과 2007년까지 부채를 모두 갚고 수돗물 공급에 따른 시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새롭게 출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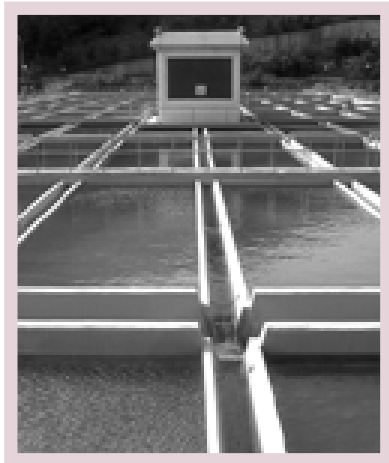
목포시는 그 동안 재래시장 주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을 위해 중앙 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자투리 수도용지를 매각하고

수도 검침원 50%를 민간 검침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에서 상수도 100년의 역사 중 가장 많은 당기 순이익 25억 3천 700만원이 발생했으며 지방채도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채 비율 28%에 비해 월등히 낮은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수율을 2008년까지 80%로 향상시키고 28억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위해 구역 개량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면서 “예고 없는 급수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 11

충남 천안시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목천읍 응원리를 비롯한 11개 자연부락에 상수도 배수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이번 상수도 배수관로 시설 사업이 금년 말까지 끝나면 1천 300가구 3천 900여명의 주민이 상수도 혜택을 입게 된다. 대상은 목천읍 응원, 신계리와 성거읍 신월, 요방, 저리, 구룡동 구룡1동, 업성동 업성1, 2동, 쌍용2동 쌍용4택지 내 급수불량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연차적으로 모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4-H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월 22일 장흥 서초등학교와 장흥남초등학교 학생 4-H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장흥읍 취수장과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과정 체험활동을 가졌다.

‘푸른장흥’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체험활동은 어린 초등학생 4-H회원들에게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물 사용 습관으로 무심코 버려지고 있는 물의 소중함을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을 통하여 직접 느끼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의 소중함과 절수의 필요성을 4-H과제 활동을 통하여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체험활동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흥군청 김기정 상하수도담당의 안내로 수돗물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취수펌프 작업 등을 살펴보고 한 후 참여한 4-H



회원들을 4개조로 구성하여 부여된 과제를 서로 협동하여 해결해 보고, 체험 소감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충남 태안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 서산 AB지구 부남호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읍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1일 9,000톤 처리 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설이 정상·가동되면 부남호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부남호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겨울 철새 도래지인 부남호(1,527ha)는 그간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할 정도로 수질이 오염돼 하천정비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 9월 9일 하수관 정비 사업에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위해 철저히 실무위주의 선진지 방문을 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단도 이 고장에 맞는 선진기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환경보전 관련 사업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관 속의 이물질 제거해 주는 것으로 하수관 노후화와 잦은 막힘 현상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등 지자체마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성군은 이에 따라 내년 착공예정인 벌교, 회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유럽지역 선진 기술을 사용키로 하고 군수가 직접 시찰단을 이끌고 유럽 현지기술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보성군은 가동 중인 보성쓰레기소각장에도 유럽식 선진공법인 열분해가스화방식의 소각로를 도입해 국제기준치보다 낮은 환경저해 물질이 나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각광받을바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기

뉴스를 기다립니다!

상하수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알고 싶은 소식이나 뉴스가 있으시면 협회 담당자(홍보팀 신재택)에게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jtshin@kwwa.or.kr

※사진자료는 인쇄를 위해 해상도 300dpi 이상 (jpg 또는 bmp파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한 건설업체에서 캐나다의 퓨리피스사가 개발한 ‘광촉매 수처리 시스템’을 기술 도입하고, 이번에 토양·지하수 오염 대책 공사에서 실증 시험을 하여 오염수의 정화에 있어서 이 시스템의 높은 처리 능력을 실증했다.

이 광촉매 수처리 시스템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나 다이옥신(DXN: Dioxins) 등 난분해성 유기 화합물에 의해 복합 오염된 지하수나 배수를 안전하게 정화함과 동시에 운용 자금을 포함한 처리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앞으로 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 시장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쏟아내는 오염

물질로 인해 '중국의 젓줄'인 황허(黃河)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서부대개발이 시작된 후 황허의 오염사태는 칭하이(靑海)·간쑤(甘肅)성과 닝샤(寧夏)·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등지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황허 유역의 40%에 가까운 지역의 수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황허 상류지역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허 유역수자원보호국이 황허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지역의 수질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기 힘든 5급수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태는 황허 상류지역에 들어서 있는 에너지 중화학 비금속 제지 기업이 쏟아내는 오염물질과 농약, 화학비료, 주요 도시의 생활쓰레기가 물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황허 유역의 최대 담수호인 네이멍구의 냐오량수오하이(鳥梁素海) 호수는 물빛 자체가 간장 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신화 통신은 전했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중심도시인 후허하오터의 서쪽에 있는 이 호수는 황허의 수질을 가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호수에는 연간 5억㎡의 폐수가 유입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Freedonia Group Inc.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비화학 수처리 장치 및 소모품 관련 시장이 2007년에 5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Freedonia Group Inc.는 클리블랜드주에 위치한 산업 시장 연구기업으로서, 최근 "Nonchemical Water Treatmen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필터링 및 분리를 이용한 수처리는 2007년에는 수처리 시장의 90%에 이를 정도로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독 분야는 수처리 운영자들이 염소 및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그들의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수록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UV 조사 장비 및 오존 발생 장치에 대한 수요가 매년 20%씩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터링 및 분리 부분에서는 역삼투압 멤브레인 시스템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정수 장치들은 활성탄 및 필터 미디어들에 대한 수요와 이들 필터 미디어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업계 및 제약 업계도 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초순수사용량의 증가에 의해 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는 매우 공격적인

수처리 공정을 필요로 하며, 다수의 화학적 처리 공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
영국 수도공사 연합은 가정의 수도세를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13% 이상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 인상은 복합적으로 투자자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영국 수도공사의 원래 계획에 절반에 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수도 사무국(Office of Water Service : OFWT)은 내년 4월부터 5년간 매년 33 파운드(USD 60\$)씩 올려 282파운드 까지 올릴 것이며, 이는 서비스 개선과 상하수도 관망 개선을 목적으로 쓰일 것이다. 따라서 금번 인상은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건설업체들은 이 투자 프로그램 비용을 약 2천만 파운드로 산정해, 평균 29% 오른 금액 또는 70파운드 오른 수도세를 요구했으나, OFWT 정책 책임자는 15.7백만 파운드 정도만을 필요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비록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밑도는 인상액일지 모르나 공정거래 분석가는 이 금액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문제이며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